

“코로나 백신 ‘인증 배지’ 다세요”

여수시, 1차 이상 접종 시민에 지급 ... 동기 부여 기대

여수시가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을 마친 시민에게 '인증 배지' (사진)를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백신 접종률 조성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7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 '인증 배지'를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배지는 65세 이상 접종자와 장애인 시설 입소자, 식당·관광지·요양 시설 등 다수 시민과 관광객을 응대해야 하는 종사자 모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 65세 미만 접종자는 '전자증명서 앱(COOV)' 활용을 고려해 희망자에게만 배부한다.

백신 접종 '인증 배지'는 접종을 했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표시는 아니지만 7월부터 야외활동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 간접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접종을 한 시민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접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동기 부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으로 기대된다.

특히 75세 이상 접종률이 92%에 달하면서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 노년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설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지 배부는 75세 이상 접종자의 경우 이·통장 등을 통해 배부하게 된다. 65세부터 74세까지 접종 시민과 65세 미만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 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 장애인시설 입소자, 식당 종사자 등은 관계부서에서 시설장이나 관련 협회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백신 접종 인증 배지 등 인센티브 정책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방역과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내년 착공



설계 당선작 선정

광양시는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설계 공모작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해 익산일반산단 내 연면적 9972㎡,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설계됐다.

광양시는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설계공모 업체를 접수했으며, 지난 7일까지 최종 접수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당선작(조감도)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담다'를 주제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핑거(finger)형 건물배치와 창의적인 디자인 등이 우수하고, 공간계획 부분과 배치계획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선미 광양시 전략정책실장은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고흥 환상의 바닷길 공영자전거로 달리자

시, 자전거도시브랜드화 사업 선정 내년말까지 34.7km 조성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자전거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50개소 중 뽑힌 5개 지자체 가운데 여수시가 포함됐다.

공모 선정으로 여수와 고흥 사이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화양면 장수리 공평마을에서 화정면 조발, 둔병, 낭도, 적금도를 둘러볼 수 있는 34.7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 또 자전거대여소, 보관대, 휴게시설 등도 설치된다.

여수시는 올해 관련 기관 협의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조발도와 둔병도 일대 전경.

푸른 바다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여수 섬 섬길 자전거 코스'가 조성되면 환상의 바닷길을 공영자전거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된다. 시원한 바람

과 한눈에 펼쳐진 푸른 바다, 아름다운 연도고 등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 방문이 기대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치매 어르신 그림 솜씨 어때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2구에서 치매환자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벽화그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치매안심마을 벽화그리기... 돌봄서비스도 지속

곡성군은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목사동면 죽정2구에서 치매환자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벽화그리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신들이 살아온 마을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을 치매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죽정2구 벽화그리기 역시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은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삽화와 함께 치매상담콜센터 전화번호를 마을 벽화로 그려넣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벽화그리기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3월에는 마을 내 치매인, 경로 인지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화장실 등 거주공간에 안전바를 설치하기도 했다. 치매안심관리사를 통한 고령 치매인 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죽정2구 마을회관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인식개선 교육도 계획돼 있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제2호 치매안심마을인 입면 흑석마을에 벽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마을주민이 벽화그리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보성군 “득량만 가로지르는 송전선 결사 반대”

특별대응 회의 개최

보성군이 한국전력의 '고흥~보성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 강행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성군 특별대응팀은 환경 사업 강행에 따른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 훼손, 현안 사업 피해 상황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흥에서 보성으로 이어지는 한전 송전선로는 보성군이 2005년부터 추진해오는 명산 가꾸기 사업지 중 하나인 오봉산 가꾸기(돌탑 쌓기, 구들장 등) 현상이 포함돼 있다.

보성군은 세계 최대 구들장 채취 현상인 득량 오봉산을 국가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 제418호로 지정된 비룡공룡화석산지, 개룡사지 등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4곳,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기수갈고동 서식지 등 문화재자원의 보고인 오봉산 권역이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다.

특히 득량면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 주민의 생존권 침해가 예상된다.

농어업과 자연경관을 통한 관광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줘 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변전소 설치 강행은 지역민을 위협하는 퇴행적 추진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매주 2회 특별회의를 개최해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